

1. **결산의 달:** 11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2. **남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2차투표:** 오늘 예배 직후에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남전도회연합회장과 여전도회연합회장을 각각 선출합니다. 후보자중 한명의 이름만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지에 기록된 후보자는 1차투표에서 다득표자 남녀 각각 4명입니다.
3. **각기관 총회:** 예배후 각기관 총회로 모입니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각기관 임부원 선출은 반드시 투표로 선출하시고 구두로 선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당회에 보고바랍니다.
4. **정기당회:** 오늘 오후예배후 당회원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 각기관은 임원선거 결과와 회의록, 회계장부를 제출바랍니다.
5. **제122차 여리고작전새벽기도회:** 12월1일(화)부터 7일(월)까지 실시됩니다. 전성도님들은 참여하여 부흥집회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 **2009년 추계부흥회:** 총력전도 및 부흥집회를 12월6일(주)부터 9일(수) 밤까지 안양신일교회 윤광중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여기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참석바랍니다.
7.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8.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이동만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 다음주는 객세중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9. **각반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금요기도회:** 4일 금요기도회는 한나여전도회 특송 및 기도 담당입니다(저녁8시).  
 > 기도는 영육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합시다.
11. **하루 교회숙직제 실시:** 계속하여 숙직제도를 시행 일자별로 정했습니다.  
 > 각자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 접견실 및 기도굴에 온열난방 설치).  
 > 금주담당자: 서점순, 김숙자, 김동해, 방정원, 진윤희, 장미옥, 문채숙
12. **부흥성회인도 감사:** 당회장 손종기목사님께서 범천중앙교회 부흥사경회를 자비량으로 은혜가운데 인도하시고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 **대청소:** 부흥집회를 위해 금주 5일(토)에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 난방기 청소 및 설치, 남녀기도실 수리, 선풍기 및 냉방시설 제거 정리 본당주변 및 옥상페인트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 **성탄트리설치:** 각기관은 오는 5일(토)까지 성탄트리장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청년부는 종탑 및 울타리에 성탄장식을 하시기 바랍니다(남전도회협조).
15. **전라어린이대회:** 다음과 같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대회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 성경고사: 우수상-김바다, 우량상-양준형 > 성경퀴즈: 최우수상-임희성, 초지용, 한재훈  
 > 성경암송: 우량상-문의람, 박병진 > 독창: 우수-윤화평, 백은진  
 > 중창: 우수-김민성의 7명 > 노래울동: 최우수-강승우외 4명, 손영은외 4명
16. **다음주:** 새기관장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17. **주일전도:** 전기관 부흥집회를 위한 주변아파트 전도실시-부흥회 전도지  
 > 전기관 부흥회 전도(남전도회-최지혁부목사, 여전도회-전순이전도사)
18. **주일심방:** 김문옥 객세종장로, 이귀님 김순심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19. **입원성도:** 성심병원(윤정희집사-319, 김금례집사-316, 최봉주성도-311)  
 조대병원(조춘자성도), 전대병원(전종진집사)

# 한글교회 하남은광교회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롬12:12)

담임 교역자  
손종기 목사  
(010-7283-8291)

각기관 총회, 당회

11월은 결산의 달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http://www.hanamekch.com/ \*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객세중 송희중 옥 룡  
 김중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김문옥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 옥룡, 지휘: 최재현(오광록)  
 ◆반주: 박지혜 · 이은혜  
**【마리아성가대】**  
 ◆대장: 김태석, 지휘: 김유영  
 ◆반주: 전미영 · 계경숙

12/1-7	제122차 여리고작전 새벽기도회, 산상기도회
12/6	새기관장 헌신예배,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6-9	심령부흥사경회(윤광중목사-안양신일교회)
12/13	정기제직회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20	정기교육위원회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24	성탄축하행사(24일), 성탄축하새벽찬양(25일)
12/25	성탄축하예배(25일)
12/27	주교출업예배, 월례회,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31	송구영신예배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서재: 070-7430-3985 ◆목사관: 962-3301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전도사: 김성훈 서향임 전순이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8-629-2785) (010-2999-7540)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하남은광홀스쿨: 강미순교육사  
 (010-3604-8139) (955-8291)

##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준비 .... 다같이(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 사 회 자  
\*개회송영 ..... 성 가 대  
\*기 원 ..... 사 회 자  
\*찬 송 .. 27 (통27) .. 다같이  
\*성시교육 .. 제 48 문 .. 다 같이  
\*사죄확인 .....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455 (통507) .. 다같이  
기 도 ..... 1부 김종철 장로

성경봉독 ..... 룻4:7-12(구408)  
찬 양 .....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우리가 증인이다.”

기 도 ..... 다 같이  
찬 송 .. 446 (통500) .. 다같이  
봉 헌 ..... 다 같이  
감사기도 ..... 설 교 자  
\*주기도송 ..... 다 같이  
\*축 도 .....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찬송 .. 428(통48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 주일 오후 예배

[ 복지위원회 헌신예배 ]

오후 2시30분 사회: 문종승 강도사  
설교: 손종기 목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이동만 장로  
성경봉독 / 마 5:7(신5)  
특 송 / 320(통350) / 복지위원회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공홀히 여기는 자의 복”

헌 금 / 330(통370) / 최옥기 권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 도 / 손종기 목사

-주일밤 성경통독-  
오후 7시~8시(사도행전)

##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이현일 장로  
설교: 손종기 목사

찬 송 / 545(통344) / 다같이  
대표기도 / 황정선 권사  
성경봉독 / 히11:31(신366)  
특 송 / 제5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라함의 결단”

헌금기도 / 542(통340) / 김요상 장로  
광고축도 / 손종기 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 12 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장기수	다음주일 낮기도: ◆1부 윤 석 장로 ◆2부 이준호 장로 다음주일오후기도: 새기관장 헌신예배 다음삼일사회특송: 조선경권사(7구역) 다음주삼일방기도: 장현자 권사 금주 12/ 5(토)청소: 전기관 대청소 이번주(29)식사당번: 1, 2, 3 구역 다음주( 6)식사당번: 4, 5, 6 구역
	2부	김종철 박의하 장승준	
안내	조윤기 서진욱 박동수 이견욱 김준영 박종관 김영산 조선경 문채숙 김숙자 김숙경 권하숙 김순신 김점덕 서정옥 송숙란 신은숙 양선숙 우숙희 이현순 정순영 전운선 계경숙 양재숙 강춘자 정영옥 김혜정 김혜진 양은옥 정영순		

##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 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 장로	1	김요상	5	10000		김혜경	김요상	954-3319	남도시민교회/5만
	2	박영심	4	7000	76	김승미	양혜숙	951-2437	곡성교회/15만
	3	곽순금	6	10000	50	김유연	송희중	953-7579	서부은광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 장로	4	교 회	3	5000		신은숙	김태석	434-2827	나주신광교회/5만
	5	교 회	4	12000	59	교 회	이현일	952-5880	서림교회/5만
	6	박복임	5	15000		신점례	이동만	953-0774	겸면중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 장로	7	조선경					조선경	952-1672	심미교회/5만
	8	박연주	4	6000		박의하	박의하	954-4684	광덕교회/5만
	9	김화자	5	5000	26	진준호	진영만	434-2902	연화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 장로	10	김경애	4	5000		공점례	신애란	452-2038	장산중앙교회/5만
	11	최상윤					최상윤	384-8475	연동은광교회/5만
	12	손문옥					손문옥	962-6487	운남평화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 장로	13	김영태	7	8000	200	박성애	김숙경	956-5064	구름다리교회/5만
	14	서향임	4	4000	20	유지춘	서향임	951-2785	경동교회/5만
	15	김효식	4	4000	10	이옥순	최옥기	955-8951	금호동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 장로	16	김숙자					김숙자	447-5214	영광교회/5만
	17	김선애	6	15000		임순분	조윤기	954-3784	장흥용산중앙/5만
	18	옥 룡					옥 룡	430-2360	노력도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 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문일환 목사/5만
	20	이준호					이준호	952-8590	세계포도원교회/5만
	21	백인숙	5	8000		양인숙	한만희	956-0484	삼기중앙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종 장로	22	김문옥					김문옥	954-2660	남악신광교회/20만
	23	오영자					나오임	070-7522-8550	군선교연합/5만
	24	장미옥	5	6000		우숙희	김종철	953-9917	반석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중 장로	25	김혜진	5	5000		김은경	서점순	961-8640	오치은광교회/10만
	26	안영철	8	5000	51	정수경	안영철	01050437055	기독교 방송국/15만
	27	이영희	2	3000		손우정	손종기	962-3301	기독교 방송국/15만
제10지구장 옥 룡 장로	28	교 회	4	5000		교 회	서진욱	413-5357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8/1	대심방	5	6000		조복임	전순이	01029997540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9	오순애	3	7000	45	김막녀	김성훈	952-3304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제11지구장 김종철 장로	30	안수집사회				안수집사	조윤기	954-3784	
	31	권사회				권사회	이정자	952-9380	
	32	중등부				중등부	양지수	431-1198	
제12지구장 손종기 목사	33	고등부				고등부	이지훈	962-7727	
	34	은광아남	25	10000		어린이집	임현옥	954-2360	
	35	대학부				대학부	진근모	01036852902	
제13지구장 최지혁 부목사	36	청년회				청년회	이현복	0116066073	
	37	백두산업				백두산업	양순희	(055)964-1412	
	38	영연스쿨				영연스쿨	방정원	954-2787	
	39	교 회	5	9000	70	교역자	최지혁	385-1320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등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시대에 교회가 시작된 후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위해 직분자들이 결정되고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 1. 직분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딤후3:1).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 함은 '명예롭고', '어울리는', '유익한' 일을 말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직분을 맡은 자는 손을 뻗어 구하되 명예롭고 어울리며 유익한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편의와 욕심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온전히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은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직분자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착하며 선하다는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직분자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딤후3:9).

모든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받은 양심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만이 참 소망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마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사람처럼, 자신 안에 천국에 대한 참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쓰여진 천국의 비밀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3. 직분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딤후3:11).

직분자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의 정도는 사도행전5:41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 받기를 성택하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와 직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참된 직분자는 환난의 때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주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 우리가 증인이다.(룻4:7-12)

엘리엘렉에게 가장 가까웠던 친족은 자신에게 그 기업을 무를 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에 이 사실을 합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자기에게 양도된 그 권리와 의무를 기꺼이 수락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장로들은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협조했습니다.

### 1. 보아스는 장로들에게 증인되기를 요청했습니다(9절).

- 1)보아스는 이 모든 일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2)보아스의 결정으로 인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축복의 기원을 받았습니다.
- 3)자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구속이나 구원은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같은 계통을 따라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룯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룻3:12,13). 같은 원칙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서도 인정되었으며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 2.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11절).

- 1)보아스의 친족끼리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준행했습니다.
- 2)보아스는 이미 이루어진 가정이 소멸되지 않고 후세에 의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 3)친족들은 서로 연관성을 지니며 서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현명하고 재력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친족들을 도와서, 한 가정이나 증인들로서 한 식구라도 잃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 3.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선행을 가슴에 얹고 증인되기를 원했습니다(12절).

- 1)그들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연합된 가정에서 '불순종', '소외', '상속권'의 상실 등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2)그들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과 가능성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는 절망적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3)그들은 반석이시며 지존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시78:35).
- 4)그들은 보아스의 행동이 단순한 풍속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진리에 대한 그림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 팔려서 악의 노예가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자신의 몸을 대속 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을 사신 것입니다(벧전 1:18,19). 그의 두 번째 임무는 잃어버린 상속 물건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구원받아 해방될 것입니다(롬8:20).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었습니다(창1:26-31 ; 잠8:6). 그런데 인간은 그런 특권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왕좌 없는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만물의 최종적인 구속을 소망하며 쓸었던 주인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히 2:5-9). 룯은 보아스와 함께 결함함으로 보아스는 룯에게 구원자이며 신랑이 되었습니다.



## 자살은 가장 불행한 선택이다.

수원형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오근섭(62) 양산시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목숨을 끊었다. 오 시장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자수성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7일 오전 7시 10분께 오 시장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농장관리인 이모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집 안팎을 둘러보던 중 오 시장이 별채 부엌 천장의 철재 빔에 노끈으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양산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오 시장은 양산시기와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금이 다른 부동산개발업자를 통해 양산시장 측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친인척과 주변 인물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지검 박민표 차장검사는 이날 "부동산개발업자와 양산시장 비서실장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고, 오 시장과는 전화로 협의해 10시께 출석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역 토박이인 오 시장은 초등학교 졸업한 후 신문배달, 구두닦이 등 역척스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 20대 초반 양곡도매업에서 성공했다. 그는 이어 운수업과 건설업 등으로 사업을 키워 40대에 양산대를 설립, 초대 이사를장을 지냈다.

1995년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04년 양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2006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1심과 2심에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후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같은 해 5월 양산시장에 재선됐다. 오 시장은 재임기간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오 시장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은 심히 안타깝다.

고난을 극복하고 달려온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법적 규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 하며 신중하게 인생을 생각하였더라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금년 들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뉴스의 통계를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또 한 사람의 지자체 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은 너무 씁쓸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생명의 소유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살은 타살과 동일한 범죄 행위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는 법이다. 인생 누구도 자기 생명을 자기의 생명이라고 주장 할 수 없다. 생명이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다. 아무라도 자기의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자살을 선택한다면 그는 타인의 생명을 살해한 것과 같은 범죄자가 된다. 그러므로 자살은 가장 불행한 선택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자살자를 내고 있다는 통계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너무 쉽게 생을 청산해버리려 했다고 본다. 오 시장이 질경이 같이 세파와 싸우면서 살아왔으니 검찰의 소환이 아니라 더 큰 대상이 소환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하여 정직했으면 정직한 대로 부 정직했으면 부 정직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극단적인 행위는 어느 누구도 좋게 보아줄 수 없는 불행스러운 행위이다.

인생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인이다. 그래서 천명을 다 할 때까지 부조짐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 찌꺼기를 찾아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이 죽고 삶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만큼 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은 저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펼쳐질 본 공연을 위하여 마련된 마지막 연습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가장 불행한 선택이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 살롱

이천 구년 십일월 이십구일  
담임목사 손종기

## 제122차 여리고 작전 새벽 기도회

기간 : 2009. 12. 1(화) ~ 7(월) 새벽5시

일시	사회	기도	특송	설교	통성기도
12/1 화	이준호 장로	박미정 권사	20구역	손종기 목사	사회자
12/2 수	한만희 집사	채은정 집사	21구역	"	"
12/3 목	김문옥 장로	장현자 권사	22구역	"	"
12/4 금	전순이전도사	오영자 집사	23구역	"	"
12/5 토	김종철 장로	우숙희 집사	24구역	"	"
12/6 주	서점순 권사	박명진 집사	25구역	"	"
12/7 월	안영철 집사	정수경 집사	26구역	"	"

진행순서: 신앙고백, 찬송, 대표기도, 특송, 설교, 통성기도

### 【 기도 제 목 】

#### ➡첫 번째

- ▶ 12월 새소망의 달 2010년도 새해 새출발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소서.
- ▶ 소망노인복지센터(가파), 하남은광홀스쿨, 소망경로대학을 위하여 복지관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주소서.

#### ➡➡두 번째

- ▶ 부흥성회로 은혜충만 받아 전도의 열매 맺게 하소서.
- ▶ 각자 받은 직분 감사하여 몸바쳐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 ➡➡➡세 번째

- ▶ 민족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국가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 어지게 하소서.
- ▶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은 형제들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돌아보게 하소서.



## 향기로운 예물

### ● 십 일 조

교역자 : 손종기 문중승 김성훈 전순이  
 장로 : 김명관 김기태 송희중 객세종  
 안수집사 : 이병권 한만희 한경택  
 권사 : 최옥기 이길례 김신자 김순심 장현자  
 집사 : 양선숙 정종균 송미경 김판심 김연채 손상원 박영순 임순분 허성복 박복임  
 이현복 감준명 박영애 윤성래 윤경순 백성행 손우정 이병욱 임연옥 박성희  
 김선자 기영희  
 ♥♥♥♥ : 이영현 이영희 장영희 강미순 김 은 윤정욱 김진선

### ● 감사헌금

교역자 : 손종기 최지혁 문중승 전순이  
 장로 : 이동만 김태석 객세종 김요상 옥 룡  
 안수집사 : 최재현 한만희 손문옥  
 권사 : 이길례 장현자 김숙자 방봉순 이정자 서점순 박경남  
 집사 : 김선자 손상원 윤경순 오금례 박은원 손우정 민찬임 김인숙 이견욱 김 호  
 진준호 박종관 정영순 박영애  
 ♥♥♥♥ : 장영희 이영선 윤정욱 이영희 노병호 김성욱 조리라 김태희 김 은 김양덕  
 이영현 옥승주 김순덕 박성구 기연님 정해정 무 명  
 대심방 : 김은경 김덕수 박호숙 오순애 김명옥 송서란 김막녀 허성복 전경순 서진욱  
 한경택 윤성래 조정현 박영진 김순겸 이병욱 김성수 김선자 김문옥 장기술  
 양선숙  
 추수감사 : 박종삼 김변순 방연혁 임순분 객세종 이복남 유금순 백인숙 김양선 김예슬

### ● 선교헌금

교역자 : 최지혁  
 장로 : 객세종 김문옥  
 안수집사 : 한만희 이대남 이병권 김용신  
 권사 : 장현자 이길례 김숙경 양혜숙 권사회  
 집사 : 박명심 한정자 윤희수 기공서 손상원 김인숙 김 호 박영애 조정화 백성행  
 손우정 최은주  
 ♥♥♥♥ : 이지훈 이영현 이성노

### ● 복지헌금

손종기 최지혁 문중승 객세종 서진욱 장영희 이현순 한만희 서점순 백성행

###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서점순 김숙경 이정자 조윤희 김중철 김천대 송희중 최순희 양재숙 김민균 이재성  
 이재연 김영월 김재한 김바다 허선규 이병권 임춘진



## 100가지 기도응답의 비결

### 51.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환경이 조성 되었기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은 환경을 초월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막1:35).

### 52. 기도하기 싫으면 예수님도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분에게 고문이지  
 즐거움이 아닙니다.

### 53.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기도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습니다.

### 54.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주셔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롬8:28).

### 55. 기도의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바르면 열렬한 기도가 가능해지고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 56.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마6:38).

### 57. 삶이 묻어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의 무성한 말보다 삶을 먼저 보십니다.

### 58.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  
 니다(요삼1:2).

### 59.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을 때에 기도의 향로에 불이 당겨지고 그 향연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 60. 말씀의 깨달음이 먼저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하십시오.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고 기도의 거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제2차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순번	일자	성명	비고	순번	일자	성명	비고
1	10/6일	손종기	010-7283-8291	37	11일	박동수	010-5602-7559
2	7일	최지혁	010-3615-1638	38	12일	김용신	010-3008-6567
3	8일	문중승	010-7617-4070	39	13일	이귀님	062) 952-8590
4	9일	김성훈	016-627-7655	40	14일	임춘진	011-604-8516
5	10일	서향임	018-629-2785	41	15일	김신자	010-7752-8667
6	11일	전순이	010-2999-7540	42	16일	서금자	016-9225-2602
7	12일	이준호	062) 952-8590	43	17일	모순자	010-6610-5880
8	13일	김기태	010-4633-8667	44	18일	최옥기	010-4323-7101
9	14일	김문옥	010-2565-2602	45	19일	유금례	010-9455-9579
10	15일	김명관	011-640-9608	46	20일	이봉순	016-9601-3784
11	16일	이현일	011-625-6945	47	21일	황정선	016-640-9608
12	17일	이동만	011-609-0774	48	22일	임현옥	010-3907-2360
13	18일	곽세종	011-9607-9883	49	23일	장현자	010-3114-9886
14	19일	송희종	010-4370-7579	50	24일	조선경	010-5469-1670
15	20일	옥 룡	011-616-2360	51	25일	김복희	010-2622-9919
16	21일	김종철	010-7735-9917	52	26일	이난순	010-6310-2827
17	22일	최상윤	010-5059-8475	53	27일	박미정	010-3619-0362
18	23일	김요상	011-602-0724	54	28일	이정자	010-5509-0809
19	24일	김희중	010-5468-1670	55	29일	서점순	010-8944-8640
20	25일	진영만	010-605-2902	56	30일	김숙자	010-2360-5214
21	26일	김태석	010-8777-2827	57	12/1일	김동해	019-406-2586
22	27일	오광록	010-7603-9851	58	2일	방정원	010-9474-2787
23	28일	유영만	010-3629-3477	59	3일	진윤희	010-7488-9851
24	29일	김영근	011-638-1538	60	4일	장미옥	010-7704-9917
25	30일	한만희	011-9739-0484	61	5일	문채숙	010-5643-0198
26	31일	손문옥	011-9606-6487	62	6일	양혜숙	010-6873-2437
27	11/1일	조윤기	016-681-3784	63	7일	김점자	010-6653-0559
28	2일	한경택	011-633-7200	64	8일	김숙경	010-8245-5064
29	3일	장기술	011-9604-0577	65	9일	허경자	011-9607-8475
30	4일	최재현	010-6231-4589	66	10일	방봉순	011-605-3310
31	5일	박의하	010-2231-4684	67	11일	황생자	010-9877-1729
32	6일	장승준	010-6609-2782	68	12일	권화숙	010-7708-4315
33	7일	이대남	010-2615-5064	69	13일	김순심	010-7721-3238
34	8일	김재한	011-617-0571	70	14일	김용덕	010-2636-2114
35	9일	서진옥	010-5446-5357	71	15일	유양덕	010-5339-1831
36	10일	이병권	010-6203-8640	72	16일	김정숙	010-2467-2113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12월 4일 금요기도회 (한나 여전도회)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갑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 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	다	같	이
대표 기도	.....	김	신	자
특송	.....	한	나	여전도회
설교	.....	손	종	기
개인 기도	.....	다	같	이

합심기도제목		
교회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이귀님 권사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기도전도	● 200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새로운 결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김점자 권사
	● 부흥집회를 은혜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개척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유금례 권사
직분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교육기관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합심기도
국가선교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성도	● 병원입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